

# 박지수 없이 내리 3승... KB스타즈 '진짜 왕별'

삼성생명과의 챔피언전 '짜꿍이' 4년 만 통합우승... 통산 세번째 '원팀'으로 무적 경쟁력 이어가 허예은 '최우수 선수' 선정 영예

청주 KB가 통산 세 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여자프로농구 정상에 복귀했다.

KB는 26일 경기도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3차전에서 용인 삼성생명을 80-65로 제압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 무패를 기록한 KB는 2021-2022시즌 이후 4년 만에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모두 석권하는 통합 우승을 일궈냈다.

KB는 팀 역사상 세 차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모두 통합 우승으로 장식하게 됐다.

올 시즌 정규리그 1위(통산 6회)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KB는 아산 우리은행과의 플레이오프를 전승으로 통과한 데 이어 챔피언결정전까지 무패로 마치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우승은 팀의 핵심 전력인 센터 박지수가 발목 부상으로 챔피언결정전 3경기에 모두 결장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 핵심 전력의 이탈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26일 열린 여자농구챔피언결정 3차전에서 삼성생명 블루밍스를 꺾고 내리 3승을 거둔 KB스타즈가 챔피언 자리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KB는 '원팀'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시즌 마진표를 찍었다.

챔피언결정전 1, 2차전에서 개인 통산 챔피언전 최다 득점(18점)을 올린 데 이어, 3차전에서 최다 어시스트(8개) 기록까지 잡아 치운 허예은은 기자단 투표를 통해 생애 첫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허예은은 총 투표수 72표 중 47표를 획득해 팀 동료 강이슬(25표)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승리에 1승만을 남겨뒀던 KB는 이날 경

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틀어쥐었다.

KB는 1쿼터 허예은의 장거리 3점 슛 2개를 시작으로 이재은, 강이슬, 송윤하, 사카이 사카가 고르게 외곽포를 가동하며 24-16으로 앞서 나갔다.

반면 삼성생명은 상대의 외곽 공격을 제어하지 못한 데다 1쿼터에만 실책 5개를 범하며 흐름을 내쳤다.

2쿼터에도 삼성생명의 난조는 이어졌다. 쉬운 득점 기회를 놓치고 실책이 반복되면서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사이 KB는 강이슬이 2쿼터에만 14점

을 몰아치는 화력을 선보이며 전반을 44-33, 11점 차로 이끈다.

3쿼터에도 강이슬의 고강도 득점포를 앞세운 KB가 격차를 더욱 벌였다.

강이슬은 오른쪽 측면에서 균형을 잃은 채 시도한 고난도 외곽포까지 림에 꽂아 넣으며 기세를 올렸고, 여기에 이재은의 3점 슛까지 더해지며 KB는 3쿼터 중반 60-40, 20점 차로 앞섰다.

결국 67-48로 접어든 마지막 쿼터에도 반전은 없었다.

KB는 양지수가 쿼터 초반 3점 슛을 터

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허예은도 자신의 이날 세 번째 외곽포를 림에 꽂으며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KB는 강이슬이 28점 리바운드로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허예은이 12점 8어시스트로 승리를 뒷받침했다.

이재은과 송윤하도 각각 14점, 11점을 보탬으며 사카이 사카는 10점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해란이 19점 5리바운드를 기록하고, 하마니시 나나미가 11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글=사진=연합뉴스

## 송성문, 빅리그 승격 '27번째 선수'로 합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송성문(29·사진)이 '맥



시코시티 시리즈'를 통해 고대하던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애리조나 다이나모스와의 텍사스 시리즈 2연전을 앞둔 26일(한국 시간) 산하 트리플A 팀인 엘패소 치와와스에서 뛰던 송성문을 빅리그로 호출했다.

송성문은 이번 시리즈에 '27번째 선수'(특별 추가 로스터) 규정을 통해 합류해 빅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MLB 사무국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치르는 시리즈의 경우 빅리그 로스터를 26명에서 1명 늘린 27명으로 늘린다.

샌디에이고는 애리조나에 빅리그 기회를 잡은 송성문은 이제 본격적인 생전 싸움에 들어간다.

이날 선발 명단에서 빠진 송성문은 교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샌디에이고는 애리조나에 6-4로 역전승했고, 대타나 대수비 또는 대주자 투입 없이 선발 출전한 9명의 야수로 경기를 끝냈다.

송성문은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애리조나전에서 빅리그 데뷔를 노린다.

25일까지 17승 8패(승률 0.680)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는 샌디에이고는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0.682로 30개 구단 가운데 24위에 그친다.

송성문은 지난 오프시즌 샌디에이고가 야심 차게 영입한 자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12월 샌디에이고와 4년 계약을 맺으며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으나 스프링캠프 도중 복사근을 다쳐 개막 로스터 합류가 불발되는 아픔을 겪었다.

부상자 명단(LL)에서 올 시즌을 맞이한 송성문은 최근 트리플A 엘패소 소속으로 20경기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 배드민턴, 내년부터 15점제 확정

배드민턴이 20년 넘게 굳어진 '21점제'의 문법을 버리고 15점제로의 대전환을 선택했다.

경기 운영의 근간이 바뀌는 만큼, 탄탄한 체력과 뒷심을 앞세워 상대를 옥죄던 한국 셔틀콕의 필승 전략에도 대대적인 '새 판 짜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25일(현지 시간)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새로운 점수 체계인 '15점 3게임제(3x15)' 도입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투표 결과 가결 정족수인 찬성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도입돼 20년 넘게 유지된 현행 21점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7년 1월부터는 매 게임 15점을 먼저 얻는 쪽이 승리하는 새 방식이 전면 시행된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전 세계 배드민턴계의 경기 전략에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게임당 점수가 21점에서 15점으로 6점이나 줄어들면서, 초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긴 호흡의 전술보다는 처음부터 코트 주 도권을 틀어쥐는 초반 화력전이 승패의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에게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과 남자 복식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 등 우리 선수들은 강한 체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 상대를 무너뜨리는 '뒷심'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 호흡이 짧아지면서 특유의 끈질긴 경기 운영이 위력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의 지도자들은 변화에 따른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주봉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15점제 개편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선수들의 피로도 측면에서는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은 주로 후반에 승부를 뒤집는 스타일인 만큼, 훈련에 변화를 줘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세영은 박 감독 부임 이후 기존의 끈질긴 수비 위주 운영에서 보다 공격적인 형태로 전술적 무게중심을 옮기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상황에 맞춰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기량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 역시 훈련과 전술 보완을 통해 대응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연합뉴스

와의 통화에서 "15점제 도입으로 견제가 심해질 순 있겠지만, 안세영 등 우리 선수들이 정상에 있는 이유는 특정 방식 덕분에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때문"이라며 "선수들은 새 제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할 능력이 충분하며, 단순히 시동이 늦게 걸리는 것이 아닌 만큼 빠르게 적응해 성적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협회는 제도 변화에 맞춰 국내 대회 운영 방식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선수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회에 15점제를 도입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뒷심 강한 한국대표팀 적응 비상 협회 "훈련 변화 줘 새 체제 잘 적응"


治人治世

#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선미디어

황종택 칼럼 신사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사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사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